

본당소식

공지사항

■ 이달의 생일

| | |
|--------|-----------|
| 6월 14일 | 박수연 셀리나 |
| 6월 23일 | 손현승 프란치스코 |

■ 조민아 교수(조지타운대학교) 특강

6월 7일 미사 중에 특강이 있습니다

■ 간부회의

6월 9일 화요일 7시에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 오도구 캠프

| | |
|------|-----------------------------|
| 일시 | 7월 10일(금)~7월 12일(일) / 2박 3일 |
| 장소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 회비 | 5만원 |
| 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7일 |

■ 대건장학회 대건/윤일장학금 신청 안내

대건장학회에서 본당 소속 청년 신자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히 실천하고, 본당 및 사회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에 성실성과 성장을 보이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선발인원: 대건장학금 1명, 윤일장학금 1명
- 제출서류: 신청서,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 신청기간: 2026년 5월 31일(일)-6월 12일(금)
- 제출방법: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 이메일: taegon.scholarship@gmail.com

■ 오도구 성당 블로그 제작

오도구 성당 홍보를 위해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세요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5월 31일)

| | |
|------|---------------------|
| 봉헌금 | 640 위안 |
| 미사예물 | 2600 위안 |
| 후원금 | 1000 위안(어옥연 아나스타시아) |

※ 봉헌금은 현금이나 봉헌봉투 안쪽의 QR 코드로 부탁드립니다





천주교 오도구 권보



오도구본당 QR 코드

발행 천주교 북경오도구 본당 北京海淀区后八家 248 号神哲学院 주임신부 강주석 베드로
 편집 김민규 대건안드레아 홈페이지 cafe.daum.net/wudaokouch 정년회장 권오기 베드로



지극히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상제 상혈 대축일

⊕ 오늘의 전례

| | | |
|-------------------------------------|--------------------------------|-------------------------|
| 제 1 독시 신명 8,2-3.14 L-16 가 | 제 2 독시 1 코린 10,16-17 | 복음 요한 6,51-58 |
|-------------------------------------|--------------------------------|-------------------------|

【회답송】 시편 147(146—147),12-13.14-15.19-20 가(◎ 12 가)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기록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성제송】 요한 6,56 참조

-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요한 복음 6 장은 빵에 대해 한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길어도 길어서, 평일 미사에 이 장이 복음으로 한 주간 내내 나오면 강론을 준비해야 하는 신부님들이 “빵 주간”이라고 괴로워하시지요. 그런데 이 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엉뚱하게도,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요한 6,60)라는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구절입니다. 지금 주시는 빵이 당신의 살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거북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저렇게 말했던 이들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오래 전에 이사야서 6 장에서 이사야가 하느님을 뵈고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이사 6,5)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로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난다면 저런 반응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내 삶 안으로 뚫고 들어오실 때, 이전의 평탄한 삶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빵을 많이 하신 표징을 보고서는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요한 6,14)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분을 붙잡고 싶어 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셔도 굳이 따라갑니다.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고, 더구나 당신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자 거북해하며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요한 6,66) 되돌아갔습니다. 그냥 군중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려고 하던 이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할 만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신자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식인 풍습으로 알아들었던 고대 로마인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요. 많은 이들이 떠나간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요한 6,67-68).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듣기가 거북하다고 여겨 떠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곁에 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거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지만, 그는 남들이 거북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거북하고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의 말씀임을 아는 것입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 곁에 남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요한 6,44).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따라가면 위험할 것 같은 저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저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쉽게 읽기」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 「구약의 역사실화」 등.

「2026 의정부교구 사목교서」

‘미사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선교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를 향하여’